

2017년 상반기



해외출장 가이드

인도 첸나이 출장자료

【 목 차 】

| | |
|--------------------------|----|
| I. 인도개황 | 1 |
| II. 경제 · 무역 동향 | 4 |
| III. 한-인도 경제 교류 및 인도진출전략 | 7 |
| IV. 인도 비즈니스 관행 | 17 |
| V. 남인도 체류 활동 정보 | 36 |
| VI. 주요 연락처 | 41 |
| VII. 기타정보 | 42 |





1. 인도 개황

1. 국가 개요

| | |
|-------------|---|
| 국명 | 인도 (Republic of India) |
| 위치 | 서남아시아 (동경 68.7-97.25도, 북위 8.4-37.6도) |
| 면적 | 3,287,263km ² (한반도의 15배, 남한 면적의 33배) |
| 기후 | 열대몬순, 온대 기후, 고산 기후 등 |
| 수도 | 뉴델리 (New Delhi) |
| 인구 | 13억 2,972만 명 (World Meter, 2016) |
| 주요 도시 | New Delhi(1,868만 명), Mumbai(2,153만 명), Kolkata(501만 명), Chennai(981만 명), Bengaluru(1,157만 명)등 |
| 민족 | 인도-아리안계 (72%), 드라비다계 (25%), 몽골계 및 기타 (3%) |
| 언어 | 힌두어, 영어, 주요언어 21개 등 |
| 종교 | 힌두교(80.5%), 회교(13.4%), 기독교(2.3%), 시크교(1.9%), 불교 (0.8%), 자이나교(0.4%) |
| 건국(독립)일 | 1947. 8. 15 (영국으로부터 독립) |
| 정부 형태 | 내각책임제 |
| 국가 원수 (실권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원수(대통령) : 프라납 무커지 (Shri Pranab Mukherjee) ○ 취임일 2012. 7. 25 (5년 임기)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 취임일: 2014. 5. 26 (5년 임기) ○ 소속 정당: 인도인민당 (Bharatiya Janata Party) |

자료원 : World Meter, Ministry of Home Affairs, 인도통계청, CIA, World Bank



2. 경제지표

| | | | | |
|-----------|--|----------|----------|----------|
| G D P | USD 2조 2,887억 ('16, IMF) | | | |
| 경제 성장률 | 7.4% ('16, IMF) | | | |
| 1인당 GDP | US\$ 1,747 ('16, IMF) | | | |
| 실업률 | 4.9% ('16, Trading Economics) | | | |
| 물가 상승률 | 3.17% ('17.1, 인도 통계청) | | | |
| 화폐 단위 | Rupee, Paise | | | |
| 환율 | US\$ 1= RS. 67.0123 ('17.2.9 기준, 인도 중앙은행) | | | |
| 외채 | US\$ 4,856억 ('16.3월 기준, 인도 재무부) | | | |
| 외환보유고 | US\$ 3,627억 ('17.2월 기준, 인도 중앙은행) | | | |
| 산업 구조 | 서비스업(52.98%), 건설업(8.04%), 유틸리티(2.41%), 제조업(17.18%), 광업(2.39%), 농업(17.00%) (2014~15 회계연도, 인도 통계청) | | | |
| 교역 규모 | o 인도의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 | |
| | 구분 | 2013 | 2014 | 2015 |
| | 수출 | 315,147 | 321,740 | 267,947 |
| | 수입 | 467,950 | 461,363 | 394,125 |
| | 무역수지 | -152,803 | -139,623 | -126,178 |
| 자료원 : GTA | | | | |
| 교역 품 | o 주요 수출품 - 보석 및 귀금속,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일반차량, 기계류, 의약품, 유기화합물, 의류(니트제외), 전자기기, 의류(니트), 섬유 등 | | | |
| | o 주요 수입품 -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보석 및 귀금속, 전자기기·TV·VTR, 기계류, 유기화합물, 플라스틱, 동식물성 유지, 철강, 특별 기타류, 광학 및 의료기기 부품 등 | | | |

* 주 : 인도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4월부터 해당연도 3월까지 해당

자료원 : 인도통계청, 상공부, 재무부, 중앙은행, IMF, Trading Economics, GTA 등



3. 한-인도 관계

| <p>체결협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정 (1974. 8) ○ 문화협정 (1974. 8) ○ 과학기술협정 (1976. 3) ○ 이중과세방지협정 (1985. 7) ○ 항공협정 (1992. 3) ○ 관광협력협정 (1993. 9) ○ 투자보장협정 (1996. 5) ○ 형사사법공조협정/범죄인인도조약 (2004. 10) ○ 외교관 및 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 (2005. 8) ○ 한-인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2005. 9) ○ 세관협력협정 (2006. 2) ○ 과학기술협정 (2006. 2)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서명 (2009. 8 조인, 2010. 1 발효) ○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2010.10 체결, 2011.11 발효) ○ 한-인도 민간원자력협력협정 (2011. 7) ○ 한-인도 업무협력양해각서(MOU)체결 (2011. 11) ○ 한-인도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2011. 7체결, 2011. 10 발효) ○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2012. 3) ○ 한-인도 항공협정 개정 (2015.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교역규모 및 주요 교역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연도</th> <th colspan="2">대인도 수출</th> <th colspan="2">대인도 수입</th> <th rowspan="2">무역수지</th> </tr> <tr> <th>금액</th> <th>증가율</th> <th>금액</th> <th>증가율</th> </tr> </thead> <tbody> <tr> <td>2014</td> <td>12,782</td> <td>12.4</td> <td>5,275</td> <td>-14.7</td> <td>7,507</td> </tr> <tr> <td>2015</td> <td>12,030</td> <td>-5.9</td> <td>4,241</td> <td>-19.6</td> <td>7,789</td> </tr> <tr> <td>2016</td> <td>11,599</td> <td>-3.58</td> <td>4,189</td> <td>-1.22</td> <td>7,410</td> </tr> </tbody> </table> <p>출처:KIT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기기 및 부품, 원자로 및 보일러, 철강, 플라스틱류 제품, 철도 제외 운송수단, 유기화학품, 광물성 연료, 아연 및 아연제품, 지와판지 및 제지용 펄프, 광학기기 및 사진용 기기 등 ○ 대인도 주요 수입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물성 연료, 알루미늄류 제품, 유기화학품, 철강, 면, 원자로 및 보일러,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 전자기기 및 부품, 광학기기 및 사진용 기기, 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 등 | 연도 | 대인도 수출 | | 대인도 수입 | | 무역수지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2014 | 12,782 | 12.4 | 5,275 | -14.7 | 7,507 | 2015 | 12,030 | -5.9 | 4,241 | -19.6 | 7,789 | 2016 | 11,599 | -3.58 | 4,189 | -1.22 | 7,410 |
| 연도 | 대인도 수출 | | 대인도 수입 | | 무역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 | 12,782 | 12.4 | 5,275 | -14.7 | 7,507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 | 12,030 | -5.9 | 4,241 | -19.6 | 7,789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6 | 11,599 | -3.58 | 4,189 | -1.22 | 7,410 | | | | | | | | | | | | | | | | | | | | | | | | |
| <p>투자교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 (1983년 ~ 2016년 6월말, 수출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준 : 2,227건, 52억 2,564만 달러 - 투자기준 : 40억 6,006만 달러 ○ 주요 투자 업종 (투자금액 2016년 6월 누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85.48%), 도소매업(6.0%), 건설업(2.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6%) ○ 인도의 對한 투자 (신고기준,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2016년 6월까지 : 5억 7,484만 달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교민</p> | <p>총 교민 수 11,000여 명 (2016.5), 첸나이 약 4,000명</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원 : 인도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한국수출입은행



II. 인도경제 · 무역 동향

1. 인도시장의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글로벌 경제 침체기 속 고성장 유망국가로 부상

- BRICS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인도경제는 1998년~2007년 기간 동안 BRICS 국가 중에서 중국(9.9%) 다음으로 높은 연평균 7.1%의 성장을 기록하였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평균 7%의 고성장을 실현하고 있으며, 기타 BRICS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인도 경제의 고성장 잠재력으로 한국의 새로운 수출주력시장으로 부각
 -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라 2016년 1-9월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2.11%가 감소하였음.
 - 중국의 기술발전, 경기둔화 리스크로 인해 중국을 대체할 Next China 시장으로 인도시장을 활용하여야 함.
 - 인도정부는 '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어, 전기전자, 철강, 화학, 자동차 등 분야에 진출가능성이 높음.

□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거대 노동, 소비시장

- 풍부한 노동력과 고학력 양질의 노동력 보유
 - 인도의 인구는 2016년 7월 현재, 13억3,628만명(CIA World Factbook)에 달하며, 중국에 이어 부동의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음. 2025년에는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인도의 생산가능인구는 8억 5천만명으로 추산되며, 전체 인구의 66.2%에 해당됨.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0억 150만명, 72.4%임. 인도의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 중국을 추월하여 2035년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인도는 2015-16 회계연도 기준 매년 6백만 명의 대학졸업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으로 신규유입되는 노동력은 5백만에서 5백50만명으로 추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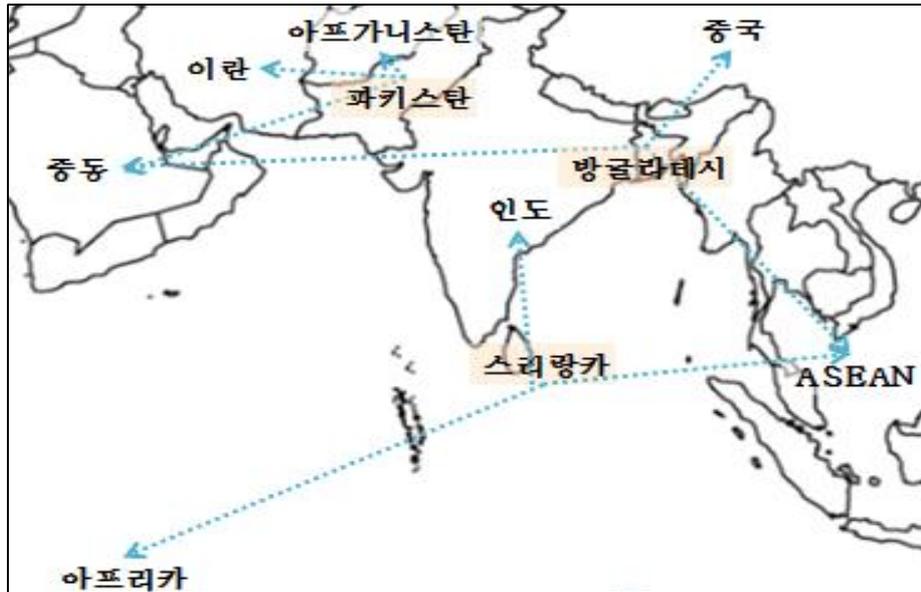
- 인도의 IT-BPM 관련 사업 종사자는 직접적으로 3백만명, 간접적으로 9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직접 고용 3백만명은 핵심인력으로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의 허브 기능을 하고 있음.
-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처분 소득으로 거대 소비시장 형성
 - 2015년말 기준 인도의 1인당 명목 GDP는 1,617달러에 지나지 않으나,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계의 가처분 소득증가로 소비규모가 커지고 있음.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에 따르면 2020년 인도 소비시장 규모는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인도 국가경제연구원(NCAER)은 2010년 기준 7,555~3만7,777달러 구간을 중산층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13.1%에 달함. 중산층인구는 2012년 1억 6천만명에서 2025년 5억 4,700만명(인구대비 3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에 뻗어있는 인도 네트워크 및 서남아 Connectivity

-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 보유, 인도기업 전세계에서 활약 중
 - UN자료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1,5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 UAE의 경우 350만명에 이르는 인도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의 30%에 해당함. 이어, 사우디아라비아(190만명), 쿠웨이트(100만명), 오만(80만명), 유럽(120만명) 순
 - 특히, 중동지역의 경우 인도인 이민자가 주축이 된 회사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으며, 그 매출은 2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 (회사명, CEO, 매출) Stallion Group(Sunil Vaswani, 20억\$), LuLu Group(Yusuf Ali, 42억\$) 등
- 남아시아의 맹주, ASEAN 및 아프리카와의 긴밀한 경제협력
 - 인도는 인도양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주요 무역 요충지로 기능하였음. 또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부탄을 포괄하는 남인도 국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패권국이기도 함.



< 인도의 지리적 위치 >



자료원 : KOTRA

-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인도정부는 이웃 남아시아 국가, 아세안, 아프리카와 적극적인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진출 한국기업은 인도를 해외수출 생산거점으로 활용가능함.

< 인도와 주변국가와의 경제교류 현황 >

| 지역 | 대상국 | 내용 |
|----------|--|---|
| 인도- 남아시아 |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의 남아시아 지역 8개 국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FTA(South-Asia FTA)는 남아시아자유무역 협정을 말하며, 2006년 1월 발효되었음. - 인도를 포함한 8개 회원국의 인구는 16억 명에 이름. - 인도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에 술과 담배를 제외한 모든 물품에 0%의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 인도- 아세안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FTA(Asean-India FTA)는 아세안 10개국과 인도간의 FTA 협약을 말하며, 2010년 1월부터 발효되었음. - 아세안과의 FTA는 인도의 아시아 중시 외교 정책인 'Look East Policy'의 영향이며, 최근 'Act East Policy'로 이름이 변경되어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 - 아세안은 인도의 4번째 교역 파트너로서, |



| | | |
|---------|-----------------------------------|---|
| | | <p>2014-15 회계연도 기준 765억 달러의 교역이 이루어졌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간의 투자교류도 활발한 편으로 2007년 4월에서 2015년 3월까지의 누적 FDI는 인도에서 아세안으로는 386억불, 아세안에서 인도로는 324억불에 달함. |
| 인도-아프리카 | 전아프리카, 아프리카 일부지역, 양자간 등 다양한 관계 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와 아프리카간 무역은 2008년 300억 달러에서 2015년 72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IAFS(India-Africa Forum Summit), RECs (India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등의 연례 만남을 통하여 관계를 강화 |

자료원 : 인도산업진흥국(DIPP)

2. 거시경제 환경

□ 인도의 거시경제 동향

- (GDP) 2015년 7.6% 성장 달성 이후, 2016년 1분기 7.9%의 견조한 성장세 유지
 - 2015년 인도는 7.6%의 GDP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16년 만에 중국(6.9%)을 추월하였음. 이는 신흥국 경제성장 평균치(4.0%)의 2배에 가까운 실적임.
 - 2016년 초 맥킨지는 인도가 2016-2020년간 연평균 7.7%의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중국(6.4%), 러시아(2.3%), 브라질(2.2%) 등 기타 신흥국보다 높은 수준임.
 - 다만, GDP 대비 제조업의 비율이 예상보다 증가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 또한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기도 함.
- (소비자물가) 국제유가의 하락안정세로 안정된 소비자 물가 시현 중
 - 2010년대 초 10% 전후의던 인도 소비자물가지수는 '14년 이래 4~6%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2014년 이후의 세계 유가하락의 외부요인과 인도 중앙은행의 체계적인 물가관리 정책에 기인함. 안정된 물가를 기반으로 하여 인도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15년 8월 이래 5차례 기준금리 인하('17. 2월 현재 6.25%)를



단행하였음.

- 인도 중앙은행의 소비자물가 관리목표치는 4%±2%이며, '17년 1월 3.17%를 기록하며 관리수준을 잠시 벗어났으나 몬순시기 충분한 강수량에 따른 양호한 농작물 작황으로 식료품 물가가 안정되어 8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교역) '16년 1-7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수출은 -5.62%, 수입은 -15.30% 감소하였음.
 - 이는 전체 수출입 비중에서 각각 10%, 30%를 가량을 차지하는 광물성 연료(석유, 석유제품)의 가격하락에 의한 것임. 인도는 원유수요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수출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무역수지가 다소 균형을 회복하고 있는 양상을 보임.
- (FDI) 인도정부의 Make in India 정책에 따라 적극적인 FDI 정책 실시
 - 2015-16 회계연도 FDI유입액은 400억 달러이며, 전년비 29% 증가하였음.
 - 모디 총리 취임 이후, 기업환경 개선에 주력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입이 크게 증가하여 외국인 투자는 인도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동력이 되고 있음.
- (환율) 타 신흥국 대비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외환보유 유지
 - '11년까지 달러당 45루피 수준의 루피화 가치는 점차 하락하여 2014년 이후 60-68루피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로 달러당 70선 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타 신흥국 대비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외환보유고는 3,600억 달러 규모에서 큰 변동없이 안정적인 상황임.

< 인도의 외환관련 지표 변동현황 >

(단위 : 달러, 1달러당 루피)

| 지 표 | 2010-11 | 2011-12 | 2012-13 | 2013-14 | 2014-15 |
|-------|---------|---------|---------|---------|---------|
| 총 외채 | 3,178억 | 3,608억 | 4,094억 | 4,406억 | 4,758억 |
| 외환보유고 | 3,048억 | 2,944억 | 2,920억 | 3,042억 | 3,413억 |
| 환율 | 45.56 | 47.92 | 54.41 | 60.50 | 61.40 |

자료원 : 인도 중앙은행



□ 인도경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 (긍정요소 1)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

- 인도 경제는 '14-'15년 연속으로 7%대의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16년에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IMF, EIU 등 유력 경제분석기관들은 인도가 2020년까지 연평균 7%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글로벌 신용평가사들 또한 인도의 장기성장전망을 양호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 인도 : (S&P) BBB- 안정적, (Moody's) Baa3 긍정적, (Fitch) BBB- 안정적
 - * 러시아 : (S&P) BB+ 안정적, (Moody's) Ba1 부정적, (Fitch) BBB- 안정적
 - * 브라질 : (S&P) BB 부정적, (Moody's) Ba2 부정적, (Fitch) BB 부정적

○ (긍정요소 2) 경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 모디 정부는 취임 후 'Make in India' 캠페인을 천명하면서 인도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도가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이를 위해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사업용이성 평가(Doing Business) 순위를 현 130위에서 50위권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하였음.
- 기존의 복잡한 간접세를 통합하기 위해 GST(Good and Service Tax)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외 토지법, 노동법 등 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도 시도 중임.

○ (부정요소 1) 만성적인 재정과 교역의 쌍둥이 적자

- 인도의 재정적자는 매년 GDP의 4%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주 정부의 재정적자를 포함할 경우 7%에 달함.
- 이에, 인도정부는 2016-17 회계연도 재정적자 목표를 3.9%, 내년에는 3.5%로 설정하고 재정적자 축소에 전력하고 있으나, 2016-17 회계연도 1분기 재정적자가 이미 전체 계획수준의 42.9%에 달하는 등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축소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
- 인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5-16년 기준 인도의 무역적자는 GDP의 1.1%에 달함. 이는 최근의 유가 하락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축소된 모양새임. 전체 수입액의 25-30% 가량이 원유로 에너지 자원의 정도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편임.
- 현재, 30-40 달러대에 형성되어있는 국제유가로 인하여 무역적자폭이 상당히



감소한 상태이나,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수출 또한 함께 줄어들고 있어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부정요소 2) 불투명한 행정처리 및 열악한 기업환경
 - 인도 관계 당국의 행정은 느리고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인도 투자 기업은 관련 허가 취득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각종 규제에 의해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일례로, 세계은행이 발간한 사업용이성 평가(‘Doing Business 2016’)에서 전체 조사대상 국가 189개국 중 인도는 건설 허가 취득 난이도 관련 183위를 기록하였는데, 허가 취득에 필요한 절차의 수가 평균 32.47개(한국 10개)에 달하였음. 이는 2014년도 조사(182위, 35개)보다 개선된 점이 거의 없는 상황임.

3. 인도 수입 및 경쟁동향

□ 인도의 수입동향

- 교역액 기준 세계 15위, 최근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수입은 감소
 - 2015년 기준 인도의 교역액은 662,073백만 달러로, 세계 15위 국가임. 이는 멕시코, 싱가포르와 비슷하며, 러시아, 브라질보다는 규모가 큼.
 - 2014년 말 국제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수입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 2016년 7월 전년동기 대비 15.3%가 축소되었음.

< 인도의 수출입 추이, 2013-2016.7월 >

(단위 : 백만달러, %)

| | 2013 | 2014 | 2015 | 2016.7월 | 증감율 |
|-------|---------|---------|---------|---------|--------|
| 총 교역액 | 783,098 | 783,102 | 662,073 | 349,036 | -11.35 |
| 수출 | 315,147 | 321,740 | 267,947 | 151,791 | -5.62 |
| 수입 | 467,950 | 461,363 | 394,125 | 197,245 | -15.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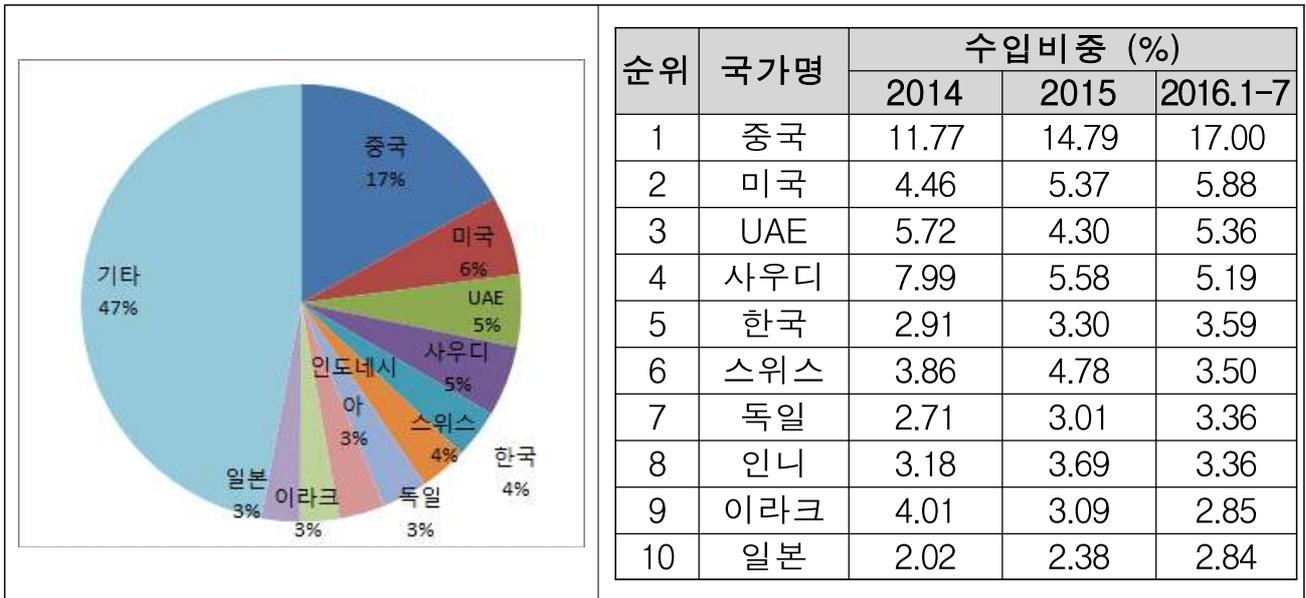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미국, 중동, 한국 등임.
- 최대 수입대상국은 중국과 미국으로 2016년 상반기 기준 각각 17%, 5.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유수입에 따라 UAE, 사우디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유가하락으로 산유국의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의 수입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대인도 수출 상위 10개국 및 수입비중 추이, 2014-2016.7월 >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제품 및 경쟁 동향

- 기존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 하락 및 공산품 수입 증가
- 광물성연료(HS27)와 귀금속(HS71)은 인도의 주요 수입품목이며, 전체 수입 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2014년 말 유가하락과 함께 광물성연료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2016년 7월 현재 동기대비 27.26%가 감소하였음.
- 전자제품 및 부품을 중심으로 수입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철강, 화학 제품의 경우 인도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로 수입액이 줄어들고 있음.
- 이는,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른 것으로, 자국기업들의 기술력으로 생산이 가능한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수요가 대체되거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대표적인 분야가 화학, 철강산업임.



- 중국제품의 수입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산 전자기기(HS85) 제품의 수입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16년 중국인 대인도 수출품목 및 비중 : 전자기기(HS85, 33.01%), 기계류(HS84, 17.89%), 유기화합물(HS29, 9.85%), 플라스틱(HS39, 3.22%), 철강(HS72, 3.04%) 순

* 중국산 전자기기 수입액('16년 7월까지) : 11,071백만\$, 전년비 10.38% 증가

< 인도의 주요 수입품목, 2015-2016.7월 >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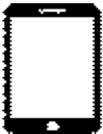
| 순위 | 품목명 (HS코드) | 수입액 | | 증감률 (16/15) |
|----|-----------------|---------|----------|-------------|
| | | 2015 | 2016.1-7 | |
| 1 | 광물성연료(27) | 105,558 | 48,158 | -27.26 |
| 2 | 귀석, 귀금속(71) | 59,707 | 25,691 | -25.20 |
| 3 | 전자기기·TV (85) | 35,407 | 20,322 | 4.22 |
| 4 | 보일러·기계류(84) | 32,094 | 18,839 | -0.23 |
| 5 | 유기화합물(29) | 15,942 | 8,460 | -12.76 |
| 6 |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 | 11,357 | 6,498 | -2.57 |
| 7 | 동식물성유지(15) | 10,491 | 5,678 | -1.60 |
| 8 | 철강(72) | 11,722 | 5,213 | -25.78 |
| 9 | 특별 기타류(99) | 7,893 | 4,586 | -5.92 |
| 10 | 광학·의료기기(90) | 7,190 | 4,084 | -0.93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2016년 상반기 주요 한국산 제품 대인도 수출 및 경쟁국 현황, 2016.1-7월 >

(단위 : 천달러, %)

| 제품(HS) | 한국 | 경쟁국 | | | | |
|---|---|--|---|-----------|--------|-----------|
| | | 순위 | 국가 | 수입액 | 점유율 | 점유율 변화 |
| 휴대폰 및 부품 (전화기, 8517)  | 순위: 2위 수출액: 651,991천달러 점유율: 8.42% 점유율변화: +0.38% | - | 전체 | 7,742,688 | 100% | - |
| | | 1 | 중국 | 5,293,771 | 68.37% | +3.92% |
| | | 3 | 홍콩 | 340,150 | 4.39% | +0.67% |
| | | 4 | 싱가포르 | 277,446 | 3.58% | +1.08% |
| | | 5 | 베트남 | 225,125 | 2.91% | -2.97% |
| | | 6 | 미국 | 159,120 | 2.06% | -1.45% |
| | | 철 (평 판압연, 7208)  | 순위: 1위 수출액: 266,993천달러 점유율: 38.97% 점유율변화: +3.97% | - | 전체 | 685,178 |
| 2 | 일본 | | | 161,443 | 23.56% | -9.89% |
| 3 | 오스트리아 | | | 66,367 | 9.69% | +7.65% |
| 4 | 러시아 | | | 62,192 | 9.08% | +1.97% |
| 5 | 프랑스 | | | 29,132 | 4.25% | +2.53% |
| 6 | 독일 | | | 27,350 | 3.99% | +1.01% |
|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 8708)  | 순위: 2위 수출액: 371,063천달러 점유율: 17.55% 점유율변화: +1.69% | | | - | 전체 | 2,113,992 |
| | | 1 | 중국 | 373,096 | 17.65% | +1.21% |
| | | 3 | 독일 | 362,945 | 17.17% | -0.78% |
| | | 4 | 일본 | 279,109 | 13.20% | +0.54% |
| | | 5 | 태국 | 200,786 | 9.05% | +0.30% |
| | | 6 | 미국 | 100,106 | 4.74% | -0.42% |
| | | 석유제품 (석유와 역청유, 2710)  | 순위: 3위 수출액: 300,064천달러 점유율: 13.18% 점유율변화: +0.57% | - | 전체 | 2,276,648 |
| 1 | UAE | | | 604,353 | 26.55 | +1.43% |
| 2 | 싱가포르 | | | 395,707 | 17.38 | -1.76% |
| 4 | 사우디 | | | 166,447 | 7.31 | +3.71% |
| 5 | 말레이시아 | | | 107,398 | 4.72 | -0.24% |
| 6 | 러시아 | | | 105,818 | 4.65 | +3.08% |
| 플라스틱 (염화비닐 중합체, 3904)  | 순위: 2위 수출액: 167,025천달러 점유율: 16.22% 점유율변화: -3.26% | | | - | 전체 | 1,029,703 |
| | | 1 | 대만 | 225,981 | 21.95% | -1.16% |
| | | 3 | 중국 | 147,236 | 14.30% | +1.01% |
| | | 4 | 일본 | 141,482 | 13.74% | +1.59% |
| | | 5 | 미국 | 52,454 | 5.09% | +1.11% |
| | | 6 | 브라질 | 42,852 | 4.16% | +4.08% |

주 : 2016년 1월-7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인도 수입규제 현황

- 2011년 기존의 수입규제 제도를 전면 철폐한 이래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개방적인 이라는 평가임.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주도로 통관서류 간소화 및 온라인 서류작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다만, 실제 통관과정에서 규정적용의 모호성, 인증취득시 개별 인증기관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상존하고 있음.

- 수입금지, 제한, 전매 품목 제도 운영
 - (수입금지품목) 주로 동물의 고기, 유지 등이며 총 60개 품목이 지정됨.
 - (수입제한품목) 동식물, 육류, 일부 섬유, 무기, 폭죽 등이며, 이들 품목에는 특정조건을 충족하고 허가를 받게 되어있으며, 428개의 품목이 지정됨.
 - (수입전매품목) 곡물과 연료를 비롯하여 총 22개의 품목이 지정됨.
 - * 수입금지/제한/전매품목의 상세한 내용과 목록은 아래 링크의 'Prohibited Items, 'Restricted Items,' 'STE Items'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음.
 - * 출처 : <http://dgft.gov.in/exim/2000/download-ftp1213.htm>

- 2016년 상반기 현재, 대한 수입규제 조치(반덤핑, 세이프 가드)는 총 31건이며, 전년 대비 7건이 증가하였음.
 - 품목별로는 화학 18건, 철강 및 금속 9건, 섬유 3건, 기타제품 1건임.
 - 인도 업체들의 수입제한 조치 요구로, 철강(4건), 화학(2건), 섬유(1건) 등이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 중에 있음.

- 기타 비관세 장벽
 -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에서 관리하는 IS(인도품질기준)의 경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의무인증을 요구. 특히 Make in India 전략에 맞추어 자국산업 육성 품목에 대한 의무인증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중앙/지방 정부, 항구 및 세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존재함. 중앙 정부의 규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지방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정을 모르거나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존재.



4. 인도 투자진출 동향

□ 인도의 외국인 투자동향

- 인도는 세계 제10위 투자대상국
 - 인도는 미국, 중국, 캐나다 등에 이은 세계 제 10위의 투자대상국이며, '15년 기준 외국인 투자유입액은 44,208백만 달러임.
 - 2014년 모디정부 출범이후 강력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외국인 투자유입액은 전년대비 28% 가량 증가하였음.

< 인도의 외국인 투자유입 현황, 2011-2015 >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명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전세계 | 1,566,839.0 | 1,510,918.3 | 1,427,180.9 | 1,276,999.3 | 1,762,155.0 |
| 미국 | 229,862.0 | 188,427.0 | 211,501.0 | 106,614.0 | 379,894.0 |
| 중국 | 123,985.0 | 121,080.0 | 123,911.0 | 128,500.0 | 135,610.0 |
| 캐나다 | 39,669.3 | 43,111.0 | 71,752.8 | 58,506.5 | 48,642.8 |
| 인도 | 36,190.5 | 24,195.8 | 28,199.4 | 34,582.1 | 44,208.0 |
| 대한민국 | 9,773.0 | 9,495.9 | 12,766.6 | 9,273.6 | 5,042.0 |

자료원 : UNCTAD

-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서비스 산업
 - 2000년 이래 투자누적액 중에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18%로 가장 많으며, 건설(8%), 컴퓨터(7%), 통신(6%), 자동차(5%)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인도정부는 2022년까지 현재 GDP 16%의 제조업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이 28%로 저조하기 때문임. 대다수 인구가 종사하는 농업의 경우 생산력과 소득수준이 낮은 상황임.
 - 이를 위해, 자동차, 건설, 화학, 전자기기 등 25개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FDI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 산업 분야로의 투자유입이 많은 상황임.
 - 최근, 4G 서비스의 론칭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에 힘입어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투자유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인도의 산업별 외국인 투자유입 현황, 2011-13~2015-16 >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 분야 | 2013-14 | 2014-15 | 2015-16 | 누계액 ('00.4월~) | 총 유입액 대비비중 |
|-----------|-----------------|---------|---------|---------|---------------|------------|
| 1 | 서비스 | 2,225 | 4,443 | 6,889 | 50,792 | 18% |
| 2 | 건설 (인프라 포함) | 1,226 | 769 | 113 | 24,188 | 8% |
| 3 | 컴퓨터SW/HW | 1,126 | 2,296 | 5,904 | 21,018 | 7% |
| 4 | 통신(유무선 통신, 핸드폰) | 1,307 | 2,895 | 1,324 | 18,382 | 6% |
| 5 | 자동차 | 1,517 | 2,726 | 2,527 | 15,065 | 5% |
| 6 | 제약 | 1,279 | 1,498 | 754 | 13,849 | 5% |
| 7 | 화학 | 878 | 763 | 1,470 | 11,900 | 4% |
| 8 | 상거래 | 1,343 | 2,728 | 3,845 | 11,872 | 4% |
| 9 | 전력 | 1,066 | 707 | 869 | 10,476 | 4% |
| 10 | 호텔&관광 | 486 | 777 | 1,333 | 9,227 | 3% |
| 총 FDI 유입액 | | 24,299 | 30,931 | 40,001 | 288,634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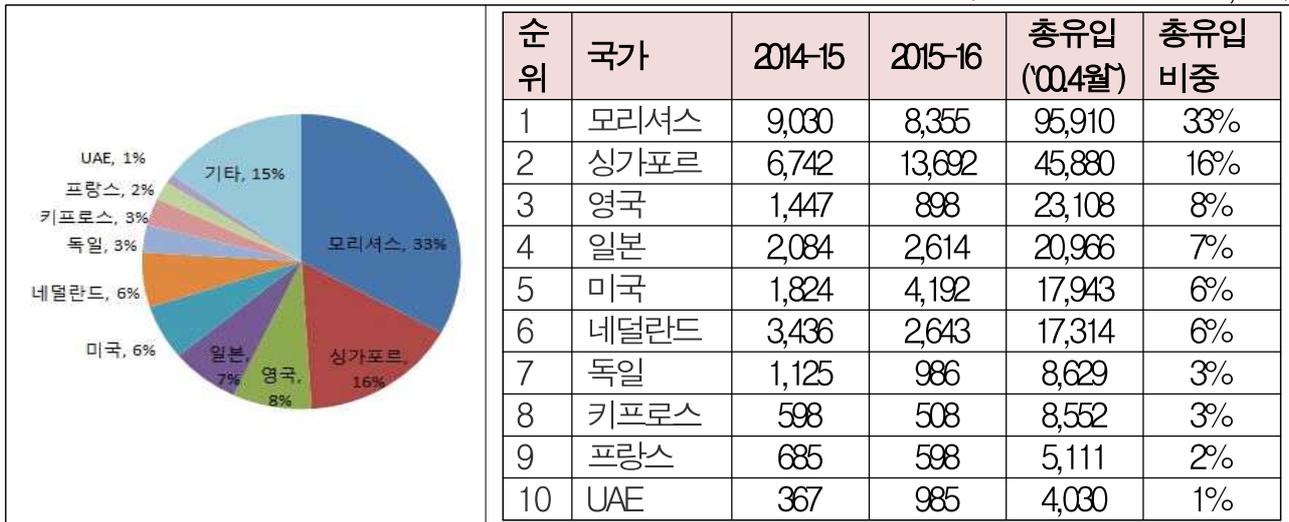
자료원 : 인도 상공부

□ 경쟁국의 투자진출 동향

- 누적액은 영국이 가장 높은 반면, 최근 미국, 일본, 네덜란드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 누적액 기준 대인도 투자국가로 상위국가는 모리셔스(33%)이나 조세회피처라는 특성을 감안시, 영국(8%), 일본(7%), 미국(6%)순임.

< 대인도 투자국 상위 5개국 및 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원 : 인도 상공부

- 미국과 일본의 서비스, 상거래, 건설 분야 투자 확대
 - 최근,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유입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서비스, 상거래 분야의 진출이 활발하며, 일본의 경우 인프라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대외협력자금을 통해 몸바이-아흐메다바드 고속철 사업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의 수주에 적극적임. 중국은 휴대폰 등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투자 진입장벽

-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에 의거한 투자제한 및 규제
 -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인도 정부기관은 산업진흥국(DIPP)이며, 산업진흥국은 '외국인투자유치 정책(Consolidated FDI Policy)'을 발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규정과 제한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외국인 직접투자는 정부의 사전승인이 불필요한 자동승인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부승인의 두 가지 종류가 있음. 자동승인의 경우, 인도 중앙은행에 투자사실과 주식발행을 신고하게 되어있음. 정부승인의 경우, 인도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IPB)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외국인 투자 상한, 정부승인여부는 산업별로 상이하며, 상기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자동승인인 경우라도, 26%, 49%, 74%와 같이 소유투자에 상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이외, 복권, 카지노, 담배제조와 같은 산업분야의 경우 투자가 허용되지 않음.
- 산업허가에 따른 규제사항
 - 인도 정부는 산업법(Industries Act, 1951)에 따라 산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허가가 필수인 산업은 다음과 같음.
 - 1) 주류품 증류 혹은 양조, 2) 담배 및 담배 대체물 제조, 3) 전자우주항공 및 방산품, 4) 도폭선, 안전도화선, 화약, 질화면, 성냥을 포함한 산업용 화약, 5) 특정 유해화학물질
 - 이는 외국인 투자승인여부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집행시, 외국인 투자와 산업허가에 따른 규제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함.



Ⅲ. 한-인도 경제교류 및 인도진출전략

1.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 동향

- 한국의 제 11위 교역대상국, 수출은 8위의 국가
 - '16년 9월 현재, 인도는 한국의 제 11위 교역대상국이며, '15년 기준 양국간 교역규모는 162억 7천만 달러로 한국 총 교역량의 8.62%를 차지하였음.
 - 2015년 수출액은 120억 2천9백만 달러이며, 싱가포르, 대만에 이어 8위 수출 대상국임.
 - 2016년 9월 현재 인도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2%가 감소하였으며, 총 수출액 증감률(-8.5%)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량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국별 수출실적 추이, 2013-2016.9월 >

(단위 : USD 백만, %)

| 순 위 | 국가명 | 2013 | | 2014 | | 2015 | | 2016(1월-9월) | |
|----------|-----------|---------------|-------------|---------------|--------------|---------------|-------------|--------------|-------------|
| | | 금액 | 증감 | 금액 | 증감 | 금액 | 증감 | 금액 | 증감 |
| 1 | 중국 | 145,869 | +8.6 | 145,287 | -0.4 | 137,123 | -5.6 | 89,674 | -12.1 |
| 2 | 미국 | 62,052 | +6.0 | 70,284 | +13.3 | 69,832 | -0.6 | 49,600 | -5.4 |
| 3 | 홍콩 | 27,756 | -14.9 | 27,256 | -1.8 | 30,418 | +11.6 | 23,603 | +6.9 |
| 4 | 베트남 | 21,087 | +32.2 | 22,351 | +6.0 | 27,770 | +24.2 | 23,547 | +12.2 |
| 5 | 일본 | 34,662 | -10.7 | 32,183 | -7.2 | 25,576 | -20.5 | 17,754 | -8.3 |
| 6 | 싱가포르 | 22,289 | -2.6 | 23,749 | +6.6 | 15,011 | -36.8 | 9,223 | -19.2 |
| 7 | 대만 | 15,699 | +6.0 | 15,077 | -4.0 | 12,004 | -20.4 | 8,529 | -5.7 |
| 8 | 인도 | 11,375 | -4.6 | 12,782 | +12.4 | 12,029 | -5.9 | 8,518 | -4.2 |
| 9 | 멕시코 | 9,727 | +7.6 | 10,846 | +11.5 | 10,891 | +0.4 | 7,134 | -19.3 |
| - | 전체 | 559,632 | +2.1 | 572,664 | +2.3 | 526,756 | -8.0 | 363,125 | -8.5 |

자료원 : 무역협회

주 : 2016년은 1월-9월 누적액,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 2010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이후 교역규모 지속 확대
 - 2009년 121억 5천만 달러 수준에 지나지 않던 양국간의 교역은 2010년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발효되면서 크게 증가하였음. 2011년도에 205억 달러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치를 보였음.
 - 2015년 기준 2013년 대비 인도로의 수출은 5.74%가 증가한 반면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동기간 -45.7%로 크게 하락하여 양국간 교역 규모의 감소세를 주도하였음.

<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 동향 >

(단위 : USD 백만)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증감률 |
|---------|--------|--------|--------|--------|-------|------|
| 수출(한-인) | 11,922 | 11,375 | 12,782 | 12,029 | 8,518 | -4.2 |
| 수입(인-한) | 6,921 | 6,180 | 5,274 | 4,240 | 3,059 | -4.9 |
| 무역수지 | 5,001 | 5,195 | 7,508 | 7,789 | 5,459 | - |

자료원 : 무역협회

주 : 2016년은 1월-9월 누적액,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 전자기기, 기계류, 철강이 한국의 대인도 수출 주력품목
 - 2016년 1-9월 기준,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전자기기(HS85, 20.31%)이며, 기계류(HS84, 13.61%), 철강(HS72, 12.59%), 플라스틱(HS39, 10.22%) 순임.
 - 4G서비스의 론칭으로 인한 통신망 구축 및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자기기 품목의 수출이 2015년 기준 2013년 대비 55.7%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인도의 제조업 육성정책 및 활발한 인프라 분야 투자확대의 영향으로 기계류와 철강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철강제품의 경우 수입규제 조치의 영향으로 2015년 수출이 감소하였음. 2016년 9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16% 감소하였음.
 - 자동차 부품, 유기화학품, 광물성 연료의 경우, 인도의 수입대체 및 수입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수출과 비중이 하락하고 있음. 2016년 9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수출량은 각각 -30.9%, -0.7%, -10.5% 감소함.
 - 이외, 아연(HS79), 지와판지(HS48) 등의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대인도 품목별 수출실적 >

(단위 : USD 백만, %)

| 순위 | 품목명 | 2013 | | 2014 | | 2015 | | 2016(1월-9월) |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1 | 85(전자기기) | 1,699 | 14.90 | 2,407 | 18.80 | 2,646 | 22.00 | 1,729 | 20.31 |
| 2 | 84(기계류) | 1,624 | 14.30 | 1,663 | 13.00 | 1,471 | 12.23 | 1,159 | 13.61 |
| 3 | 72(철강) | 1,357 | 11.90 | 1,732 | 13.60 | 1,683 | 13.99 | 1,072 | 12.59 |
| 4 | 39(플라스틱) | 1,126 | 9.90 | 1,277 | 10.00 | 1,184 | 9.85 | 870 | 10.22 |
| 5 | 87(자동차) | 1,194 | 10.50 | 1,029 | 8.10 | 1,124 | 9.35 | 558 | 6.56 |
| 6 | 29(유기화학품) | 1,208 | 10.60 | 983 | 7.70 | 581 | 4.83 | 460 | 5.40 |
| 7 | 27(광물성연료) | 676 | 5.90 | 797 | 6.20 | 511 | 4.25 | 360 | 4.24 |
| 8 | 79(아연) | 77 | 0.70 | 133 | 1.00 | 158 | 1.32 | 272 | 3.20 |

자료원 : 무역협회

□ 한국의 대인도 투자 동향

- '16년 상반기 현재, 인도는 누적액 기준 17위 투자대상국
 - 한국의 해외투자 총 누적액은 3,238억 달러이며, 미국(670억 달러), 중국(535억 달러), 홍콩(185억 달러), 베트남(137억 달러) 순임.
 - 인도는 40억 6,006억 달러로 17위 투자대상국이며, 인도네시아(91.2억 달러), 브라질(69.8억 달러), 말레이시아(46.1억 달러), 멕시코(43.9억 달러) 등 주요 신흥국에 비하여 투자규모가 작은 편임.
- 연도별 투자동향
 - 한국의 대인도 직접투자 누적액은 40억 6,006억 달러이며, 영국(231억)과 일본(209억) 등 대인도 상위 투자국에 비해 투자가 저조함.
 - 2016년 상반기 현재 투자금액은 1억5천만 달러이며, 전년동기 대비 22% 가량 증가하였음.



< 한국의 연도별 대 인도 직접투자 추이 >

(단위 : 건, 천달러)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상반기 | 누적액 |
|-------|---------|---------|---------|-----------|-----------|
| 신고건수 | 163 | 131 | 224 | 90 | 2,227 |
| 신규법인수 | 37 | 35 | 52 | 22 | 746 |
| 신고금액 | 384,159 | 341,007 | 270,554 | 212,493 | 5,225,645 |
| 투자금액 | 342,569 | 324,693 | 314,264 | 151,720 | 4,060,064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주 : 누적액은 1983년 이래

○ 업종별 투자동향

- 제조업 투자금액이 34억7,068만 달러로, 총 투자금액의 85%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음. 이후,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 및 유틸리티 순임.
- 한국의 총 해외투자액에서 제조업(34.4%), 광업(17.76%), 도소매업(10.82%), 금융 및 보험업(10.39%)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미루어 볼 때, 한국의 인도 투자는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임.

< 한국의 연도별 대 인도 직접투자 추이 >

(단위 : 건, 천달러)

| 순위 | 구분 | 신고건수 | 신규법인수 | 신고금액 | 투자금액 |
|-----|----------------|-------|-------|-----------|-----------|
| 1 | 제조업 | 1,428 | 431 | 4,480,209 | 3,470,681 |
| 2 | 도매 및 소매업 | 265 | 94 | 326,633 | 244,103 |
| 3 | 건설업 | 95 | 53 | 103,399 | 89,706 |
| 4 | 전기, 가스, 수도 | 8 | 4 | 68,709 | 64,672 |
| 5 |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 78 | 27 | 64,001 | 59,424 |
| 6 | 금융 및 보험업 | 3 | 2 | 54,870 | 44,227 |
| 7 | 기 타 | 350 | 135 | 127,824 | 87,251 |
| 총 계 | | 2,227 | 746 | 5,225,645 | 4,060,064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유형별 투자동향

- 투자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의 투자 누적액이 34.4억 달러로 85%를



점유,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도 전기전자, 자동차 관련 대기업과 동반진출하였거나 이들 대기업에 납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투자자 규모별 대인도 투자금액현황, 2013-2016.상반기 >

(단위 : 천달러)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상반기 | 누적액 |
|------|---------|---------|---------|-----------|-----------|
| 대기업 | 298,399 | 276,525 | 228,551 | 133,657 | 3,447,756 |
| 중소기업 | 40,855 | 47,049 | 44,184 | 17,414 | 530,020 |
| 개인기업 | 3,315 | 1,119 | 41,528 | 648 | 82,288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지역별 진출동향

- 2015년 기준으로 뉴델리(166개사), 첸나이(165개사)를 중심으로, 뭄바이·푸네, 벵갈루루에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음.
- 인도 북부 뉴델리의 위성도시인 노이다에 삼성전자와 LG전자 공장이 설립되어 있으며, 다수의 기업이 구르가온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음. 인도 남부 첸나이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만도 등 자동차 부품기업이 동반진출한 상황임.
- 인도 서부 뭄바이에는 은행, 운수업을 중심으로, CJ, GS 등이 홈쇼핑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벵갈루루에는 연구개발, 협력기업과 연구원을 중심으로 진출함.
- 삼성전자, LG전자는 인도 전자제품 시장점유율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승용차 부문 시장점유 2위임.

< 지역별 한국기업 진출기업 현황 >

| 지역 | 기업수 | 주요 업종 | 주요 기업 | |
|-----------------------|-----|---|---|--|
| 뉴델리 인근 (구르가온, 노이다) | 164 | 전기·전자 건설·중공업 자동차·기계 무역·물류 금융 컨설팅 화학 기타 | 33 31 27 22 8 9 9 25 |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쌍용건설, POSCO |
| 첸나이 | 172 | 자동차 및 부품 건설 | 102 15 | 현대자동차, 롯데제과, 삼성전자, 롯데건설, |



| | | | | |
|----------------------|-----|---|---------------------------|---|
| | | 제과 전기전자 무역·물류 금융 기타 | 1 15 15 24 | 만도 |
| 뭄바이 인근 (뽀네, 구자라트) | 79 | 제조업 건설·중공업 운송·물류 도소매·유통 서비스 | 32 6 11 13 17 | 현대중공업, 신한은행, LG전자, 삼성물산, 현대상선, 한진해운, STAR-CJ |
| 벵갈루루 | 31 | 연구개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유통 기타 | 11 11 1 3 5 | 삼성, LG, 두산인프라코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계 | 446 | | | |

자료원 : KOTRA ('15.2월 기준)

□ 무역협정 체결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한국과 인도는 2006년 3월 CEPA 협상을 개시하여 2009년 8월 정식 서명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부로 동 협정이 발효되었음.
- 상품분야에서 인도는 무역량 기준 한국 수출품의 85%에 대한 관세철폐 및 감축을 약속하였으며, 75%는 발효 즉시 혹은 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 후 철폐하고, 10%는 8-10년간 관세를 감축하는 내용임.
- 서비스 분야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하였으며, 대상분야는 사업서비스, 통신,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운송서비스 등임.
- 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자유화에 합의하여 개방수준을 높였으며, 인도의 경우 농업, 어업, 광업 등 1차 산업분야를 제외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한국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 2009년 1월 양국은 발효 후 2년마다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인도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2011년 이후 한동안 개최되지 않았음. 한국측은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등 CEPA의 내용을 개정하고 양허품목을 적극 확대하고자 하는 반면, 인도측은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를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임.



- 2016년 6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도를 방문하여, 제 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가 개최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음.
- 기타 경제분야 협력동향
 - (조세) 1986년 한-인도 조세협정이 체결되었으며, 2015년 모디 총리의 한국 방문 당시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을 체결하였음.
 - (항공) 2015년까지 양국간 운항 횟수는 주 6회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한항공이 인천-뭄바이 주 3회, 아시아나가 인천-뉴델리 주3회를 운영하고 있었음. 2015년 10월 한-인도 항공협정 개정이 타결되면서 운항횟수가 주 6회에서 19회로 대폭 늘어나면서, 향후 한국과 인도간 항공편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해운) 1983년 이해 해운협정 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모디 총리의 한국 방문 당시 해운항만사업 협력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음. 동 MOU는 해운물류분야 정보공유, 선원양성 및 해운합작회사 설립 등 협력 사업발굴, 물류터미널 및 항만 인프라 투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이외,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개정되면서 한국기업의 인도내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었음.

2. 분야별 진출전략

2-1. 수출

□ 소비재 시장진출을 통한 진출품목 다변화

- 증가하는 인도 소비재 시장규모와 확충되는 유통 인프라
 -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은 2020년 인도 소비시장의 규모는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음. 인도 국가경제연구원(NCAER)의 7,555-3만7,777달러 구간의 중산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에 달하며, 2025년까지 5억 4,7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유통망의 현대화 비율은 10% 안팎에 불과하며, 열악한 교통, 결제



인프라로 인하여 산지로부터의 제품운송, 집하, 도소매 연결, 결제 및 소비로 연결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음.

- 하지만, 4G서비스의 론칭과 함께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고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장터를 확충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쉽게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값싼 배송 시스템의 구축과 핀테크 기술을 통한 결제방식의 간편화로, 악명 높았던 유통시장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음.
- 온라인 유통채널 및 기진출 한국기업 네트워크 적극 활용 필요
 - 아마존, 플립카트, 스냅딜과 같은 인도내 온라인 유통채널들은 상품의 집하에 필요한 물류센터, 온라인 장터, 결제시스템 구축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 이들 대형 유통 플랫폼은 소비자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한 상품의 확보를 위해 생산자의 시장(장터)접근 개선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따라서, 대형 유통 플랫폼 납품을 통한 인도 유통시장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CJ오쇼핑(Star CJ), GS홈쇼핑(Home Shop18)과 같은 한국 홈쇼핑 업체가 인도시장에 진출해 있는 바, 이들 업체를 통한 직접적인 상품 판촉,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프로그램 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도내 국산화율이 낮은 분야를 타겟팅

- 세계의 공장을 지향하는 인도, 아직까지 낮은 수준의 기술력
 - * (전기전자 산업의 예)
 - 전기전자 산업의 규모는 750억 달러로, 2018년까지 연평균 13-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팍스콘이 인도 서부에 애플을 위한 제조공장 설립을 구상하고 있으며, 화웨이가 조만간 인도내 휴대폰 제조를 발표할 예정임.
 - 수요증가에 비해 낙후된 현지 기술력과 제조 생태계로 인하여 휴대폰의 경우 많은 생산업체들이 SKD(Semi-Knocked Down)로 수입하여 조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대부분의 인도 제조업체들은 인도내 공급사슬의 부족으로 중국 등지에서 부터 부품을 조달하여 현지에서 조립하고 있는 실정임.



- 기술 우위의 제품을 중심으로 인도시장 공략 필요
 - 현지 조달이 어려운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수입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휴대폰 분야의 경우, 8528.71(영상디스플레이), 8527.21(음성기록), 8542.32(메모리) 등과 같은 부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뚜렷한 수입대체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인도 내에서 기술력이 확보되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음.
 - * 인도상의(ASSOCHAM)에 따르면, 전자부품 생산의 기술력 부족으로 동제품의 수입의존도가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2015-16 예산안에서 수입되는 핸드폰에 12.5%의 상계관세가 부과되었음. 이는 인도 국내산 제품에 붙는 1%의 소비세와 큰 차이를 있음. 하지만 2016-17 예산안에는 휴대폰 부품(충전기, 어댑터, 배터리, 이어폰, 스피커)에 대한 기본관세와 특별부가관세를 낮추었음.
 - 마이크로 맥스, 라바와 같은 인도기업의 경우, 기술경쟁력에서 한국, 중국산 제품에 비해 열세임에 따라 시장점유율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들 업체들은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있는 부품에 대한 (수입)조달을 꾸준히 탐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주요 핸드폰 부품의 관세가 인상될 경우, 가격인상의 압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마이크로 맥스, 라바와 같은 인도 제조업체들이기에 인도정부가 기술력이 있는 제품, 핵심부품에 대해서 실효성있는 수입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인도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 인도의 적극적인 FTA 확대 정책
 - 인도는 남아시아(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ASEAN(인니,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국과는 2010년부터 CEPA 협정이 발효되어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고 있음.
 - 특히, ASEAN의 경우, 인도의 4번째 교역 파트너로서 2014-15 회계연도 기준, 765억 달러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인도는 기존의 'Look East Policy'를 'Act East Policy'로 변경하여 꾸준히 아시아 중시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음.
- 동남아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
 - 동남아시아에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한국기업의 경우, 인도-ASEAN FTA를

활용한 인도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철강, 화학품목을 중심으로 한 중국산 제품의 범람으로 인도 정부는 수 차례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총 31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음.
- 따라서, ASEAN 지역에 기진출 생산시설을 활용한 대인도 수출 우회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KOTRA를 통한 수출시장진출

○ (1단계) 시장조사

- KOTRA는 해외시장뉴스 포털(<http://news.kotra.or.kr>)을 통해 정기적으로 인도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인도 거시경제 현황, 제도, 산업 및 투자현황, 유력 품목 및 시장에 대한 조사 보고서 접근이 가능함.
- 시장조사서비스의 경우 크게 맞춤형 시장조사,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서비스가 있으며, 맞춤형 시장조사를 통해 원하는 품목의 시장수요, 경쟁현황, 수입제도 등을 파악할 수 있음.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서비스를 통해 제품수요가 있는 현지 바이어와의 교신이 가능함.

○ (2단계) 전시회 참가 및 무역사절단, 비즈니스 출장지원

- 시장조사를 통해 품목에 대한 정보와 잠재 바이어가 파악된 경우, 실제 거래선 개척을 위해 마케팅 사업 신청을 고려할 수 있음.
- 비즈니스 출장지원은 제품수요가 있는 바이어를 발굴, 현지 방문시 상담지원을 하는 서비스이며, 전시회와 무역사절단의 경우 시기별로 대상품목, 사절단 규모, 지원사항 및 참가신청방법 등을 KOTRA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3단계) 지사화 및 수출인큐베이터

- 실질적인 거래를 이끌어내기 위한 직접적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지사화는 현지 무역관에 상주하고 있는 KOTRA 직원이 거래선 발굴, 바이어 상담, 계약체결 등을 직접 지원을 하는 사업임.
- 수출인큐베이터는 KOTRA가 초기 진출기업에 사무공간 및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임.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가능함.

□ 주요 수출 유망품목

| | | | | |
|--------|-----------------|--|-------------------|---------|
| 품목명 1 | HS Code | 854140 | 수입관세율(%) | 17.390% |
| | 수입액('14/US\$백만) | 837 | 대한수입액('14/US\$백만) | 20 |
| LED | 선정사유 | 인도 전력부는 인도내 가로등 램프를 LED램프로 교체하는 계획 발표('15.8.27) "Make in India" 정책은 전력 효율화를 위해 LED, 스마트그리드와 관련된 분야에 호의적 | | |
| | 시장동향 | 인도 LED 제조협회(LEDMA)에 의하면, 인도내 LED 조명의 50%는 정부조달로 공급됨. 따라서 중앙정부 및 주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함 | | |
| | 경쟁동향 | Wipro, Bajaj, Surya 등과 같은 인도기업과 Philips, Osram, GE 등 글로벌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임. | | |
| | 진출방안 | 심화되는 경쟁에 대비 사업성에 대한 다각도 검토필요 | | |
| 품목명 2 | HS Code | 481014~481099 | 수입관세율(%) | 14.121% |
| | 수입액('14/US\$백만) | 538 | 대한수입액('14/US\$백만) | 50 |
| 지와판지 | 선정사유 | 인도정부의 식자율 증대정책과 "Make in India"에 따른 제조업 활성화, 컨슈머리즘의 확대로 제지수요 지속확대 | | |
| | 시장동향 | '14년 기준, 인도내 제지생산능력은 1,138만톤에 그친 반면, 소비량은 1,310만톤에 이룸. 제지수요는 '20년 2,000만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 |
| | 경쟁동향 | 인도내 생산자들의 비효율적인 원료조달로, 수입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은 상황임. | | |
| | 진출방안 | CEPA협정으로 인한 관세특혜를 최대한 이용 * 한국은 해당품목에 기본관세율 10%가 아닌 협정세율 3.13% 적용받고 있음 | | |
| 품목명 3 | HS Code | 842121 | 수입관세율(%) | 18.421% |
| | 수입액('14/US\$백만) | 86 | 대한수입액('14/US\$백만) | 3 |
| 정수기 | 선정사유 | 인도내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도시인구가 늘어나면서, 부족한 수처리 시설에 대한 정수기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 ('13년 이래 연 25% 성장) | | |
| | 시장동향 | 고가 정수기 시장은 LG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저가 정수기 시장은 중국과 대만기업들이 저가정책을 펼치고 있음. | | |
| | 경쟁동향 | 정수기 필터의 경우 가격경쟁이 매우 심한 편이며, 중국산 카피제품이 시중에 다수 유통되고 있음. 정수기 부품의 하나인 솔레노이드 밸브는 수요는 많으나 시장 가격은 낮게 형성 | | |
| | 진출방안 | '15.8월에 개최된 인도 물 산업전 당시, 7개 기업 148개 기업이 참가할 정도로 인도 수처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바, 지속적인 시장모니터링 및 관심 필요 | | |
| 품목명 4 | HS Code | 848060 | 수입관세율(%) | 25.937% |
| 건축용 주형 | 수입액('14/US\$백만) | 76 | 대한수입액('14/US\$백만) | 22 |
| | 선정사유 | 인도 모디정부의 스마트시티 건설계획(2020년까지 100개)에 따라 건축용 주형에 대한 산업수요 확대 | | |



| | | |
|--|------|---|
| | 시장동향 | 인도 전체의 수입량은 14,000톤으로 추산되며 이중 말레이시아산이 60%, 한국산이 25% 정도로 추산됨. |
| | 경쟁동향 | 말레이시아, 한국 등이 주요한 수입처임 |
| | 진출방안 | 한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은 약하지만 품질이 좋은 것으로 인식되어있었음. 인도 건축분야 바이어들의 성향상, 신뢰도가 높은 주형제품에 대한 선호가 강하기에 경쟁사 대비 품질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2-2. 투자진출

□ 인도정부 중점 산업분야 관련 투자진출

-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 및 규제 완화
 - 2014년에 출범한 모디 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핵심 슬로건이 'Make in India'임.
 - 모디 총리가 취임 후 첫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ake in India의 핵심은 외국기업이 인도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임.
 - 이에, 인도정부는 철도를 위시한 인프라, 자동차와 같은 핵심 산업분야, 방산, 유통, 제약과 같은 육성대상 산업의 외국인 상한을 철폐하거나 투자 제한을 완화하였음.
 - 또한, 경제자유구역(SEZ)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의 감세 및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공제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있음.
- 수출규제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
 - 인도는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제품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음.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철강, 화학과 같은 제품에 대한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 유발을 위해 수입규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인도정부의 중점 육성 산업분야에 대한 현지 진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연계한 중소기업 동반진출**

- 열악한 기업 생태계 및 기업환경
 - 인도의 제조업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편이며,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중간재의 경우, 독자진출시 원자재의 조달과 판매처 발굴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음.
 - 세계은행의 사업용이성 평가에 의하면, 인도는 189개국 중 13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투명성 기구가 작성하는 국가별 부패지수에서도 76위에 위치하는 등 기업환경이 열악한 상황임.
- 동반진출을 통한 납품망 확보 및 현지 열악한 산업생태계에 대한 대응
 - 기아차가 인도 시장진출을 선언하였으며, 삼성은 노이다의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롯데가 뉴델리 역사 복합개발안을 내놓는 등, 기존의 자동차, 전기전자 뿐만 아니라, 유통 등 기타분야의 투자진출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임.
 - 중국업체들의 경우,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분야의 현지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마존, 월마트를 중심으로 미국계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인도 시장을 주시하고 있음.

□ **KOTRA 등 지원기관을 통한 현지 투자진출**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는 뉴델리 무역관 내에 한국투자기업 지원 센터를 설립, 한국기업의 인도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 현지 로펌 및 회계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 투자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현지 법률, 조세 관련 상담이 가능함.
- (Korea Plus) 외국기업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Invest India 산하의 한국인 기업 전용 투자유치 데스크임.
 - 2016년 6월 개소하였으며 한국기업의 인도 투자진출 관련 상담, 유력 지역소개, 대 인도정부 애로해소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www.investindia.gov.in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IV. 인도 비즈니스 환경

1. 인도경제의 강점

- 광활한 국토 : 한반도의 15배, 남한의 33배임
 -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에 이어 세계 7위의 면적을 보유, 특히 대부분이 평야로 이루어져 국토의 활용도가 뛰어남
- 약 12억의 인구 : 무한한 내수시장 잠재력, 풍부한 저임 노동력
 - 12.6억 명의 인구로 세계 총인구의 17%를 차지, 중국(13억 명)에 이어 세계 2위의 인구대국. (중국은 세계 총인구의 20.5%)
 - 인구 증가율 1.01%로 중국의 0.57%를 훨씬 능가, 2025년에는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함
 - 경제성장과 함께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이 급증함
- 탄탄한 기초과학 기술 기반
 - IT, 제약 등 BT, 우주항공, 수리/물리 등 기초과학 기반 구비
- 중장기적 본격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 진입
 - 2009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 및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기 하락세를 보였으나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최근 다시 성장세로 반등.
 - 외부에 크게 의존할 필요 없는 풍부한 자원, 광범위한 산업기반, 증가 일로에 있는 양질의 기술 인력, 경제 개방과 자유화 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
- 서비스/지식기반 산업의 중심국으로 부상 가능성
 -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라면 인도는 세계지식기반산업의 중심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안정적인 경제 체제 및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체제
 - 2016년 기준 3,690억 달러 외환보유고, 안정된 은행 시스템 보유.
 -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각종 국가정책의 수립, 시행이 '느리지만 부작용이 없다'는 강점



2. 인도 경제의 약점

-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인프라 시설)
 - 전력, 용수, 도로, 공항, 항만 등 인프라 전반이 아직 취약
- 관료주의 및 공무원의 부패 및 행정절차의 까다로움
 - 인도는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해 매년 발표하는 국가 청렴도 지수에서 94위에 위치하여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
 - 인도는 UPA정권하에서의 각종부정부패 및 500억 달러에 달하는 불법자금 등 만성적인 부패문제에 당면해 왔으나, 신정권(BJP)의 주요정책인 부패척결을 통해 얼마만큼의 대외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함
- 과도한 재정적자 및 대외부채
 - 인도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2012~13회계연도 4.9%에 달하였으며 2013~14회계연도에는 US\$ 1,324억에 이르러 전년대비 무려 US\$56억 달러 증가
- 절대빈곤/극빈 계층 다수 존재
 - 전체 인구의 20%인 3억명이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의 극빈층에 속하고, 매년 2%가 넘는 증가율로 경제성장 및 재정에 부담
- 신분(카스트 제도) 및 종교적 갈등 상존
 - 헌법에서는 폐지된 신분제도가 실생활에 여전히 상존, 힌두· 무슬림 간에 내재된 종교적 갈등도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
- 테러, 파키스탄과의 분쟁 및 조류 독감 등 우발적 사태 상존
 - 2011년 발생한 델리 고등법원 폭탄 테러 등 각종 테러사건 발생
 - 파키스탄과의 정치적 불안, 조류 독감 등 각종 질병의 창궐 등으로 인한 불안성과 환경적 위험이 상존



3. 인도시장의 잠재력

- 인도의 성장 잠재력을 대변하는 사례들
 - 미국 과학자의 12% / NASA 과학자 36%가 인도인
 - 과학자/엔지니어 조달 용이성 세계 1위(세계경쟁력 보고서)
 - Microsoft 직원의 34%, IBM 직원의 28%, Intel 직원의 17%, Xerox 직원의 13%는 인도인
 - Hot mail 창시자 (Sabeer Bhatia)
 - 펜티엄 칩 설계자 (Vinod Dham)
 - Sun Microsystem의 공동 설립자 (Vinod Khosla)
 - 시티은행 전CEO (Victor Menezes)
 - Mckensey의 전CEO (Rajat Gupta)
 - 미국 의사의 38% / 영국의사의 1/3이상이 인도인
- 정부의 모바일기기보급 장려정책 등 새로운 모바일기기 신규수요 확대
 - 인도는 2015년 기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동통신 가입자 보유국이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터넷 사용자 보유국임
 - 인도통신규제기구(TRAI)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인도의 휴대전화 누적 가입자는 9억 8,869만 명으로 집계
 - 유무선을 합한 전체 통신망 가입자는 10억 명이 넘는데 이 같은 흐름에는 'Bharti Airtel', 'Vodafone', 'Idea' 등 인도 내 이동통신업체들의 고객 확보 경쟁이 큰 몫을 하고 있음
 - 인도의 통신 산업은 2020년까지 3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자동차 시장
 - 2015년 기준 인도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이며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륜차를 생산해 내는 국가
 - 인도의 자동차 생산량은 2009-10년부터 2014-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인도 자동차산업협회(SIAM)에 따르면 2014-15년 자동차 생산량은 승용차 약 322만대, 상용차 약 69만대, 삼륜차 약 95만대, 이륜차 약 1,850만대를 기록
- 세계 섬유시장에서 인도의 부상
 - 인도는 세계 최대 면화생산지를 확보(세계 면화생산의 12% 차지)하고 있으며 원부자재 조달의 용이성, 풍부한 저임 노동력, 방대한 내수시장을 배경으로 세계 섬유생산 주요국으로 부상
 - 인도 정부는 섬유산업이 향후 연평균 16%의 높은 성장을 지속, 2016년에는 1,430억 달러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

- 정부 재정투입을 통한 인프라 건설 활력
 - 인도 정부는 인프라 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거 10년간 전력, 통신, 항공, 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 부문 투자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둔 부분은 통신과 도로 부문에 불과함. 그러나 최근 에너지 부문에서도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와 맞물려 각 州 간의 경쟁으로 인프라 개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특히, 인도 정부는 1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12~'17)중 인프라 부문에 총1조 204억 달러 투입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중임

4. 인도시장의 비즈니스 관행

- 주요시장특성
 - 소득 불균형과 소비의 양극화
 - 품질보다는 가격이 우선하는 시장
 - 신뢰보다는 가격에 따른 거래선의 잦은 변경
 - 높은 관세장벽과 복잡한 관세 체계
 - 수입시장의 지속적인 개방과 관세율 인하
 - 거점 도시별 상권의 분리
 - 비대한 공기업과 민영화의 진전
 - 정부/공기업의 대규모 국제입찰 다수 발주
 - 다국적기업들의 현지생산 및 아웃소싱 거점화 심화
- 인도의 비즈니스 관행
 - 인도는 대표적인 가격시장으로 대개 현지 바이어들은 수차례 협상을 통한 끈질긴 가격인하를 요구하며, 마진율이 타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신용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 거래관계 구축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중시
 - 단순히 선언적인 내용을 구두로 약속한 것은 인도와 거래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중요한 합의사항은 반드시 문서화 필요
 - 계약체결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오직 최고위층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책임자와 협의해야 함.(실무자와의 협의결과는 쉽게 무시)
 - 모든 협의 및 계약 시 에이전트 활용 유용
 - 문서에 강함 (모든 계약조항은 꼼꼼히 확인 필요)



5. 기타 협상 및 비즈니스 요령

□ 약속잡기

- 근무시간은 통상 09:30~17:00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3:00~14:00 사이에 이루어짐
- 인도 경영층은 11:00~16:00에 미팅하는 것을 선호
- 단, 정작 당사자들은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임에 유의

□ 이름 및 호칭

- 상대방을 부를 때 Professor, Doctor로 부르는 것이 보편적이고 이름은 주로 성을 사용하며 여성은 남편의 성을 따름
- 상대방의 직위나 나이가 높은 경우 Sir, Madam이라는 존칭을 사용

□ 대화

- 인도인들은 개방적이고 우호적이며 서구국가에 비해 사생활에 대한 관념이 낮은 편이므로 가족과 개인의 생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것에 거부감 없는 편
- 인도 사람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특정지역 한정된 정치이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을 권고

□ 선물

- 선물포장은 흰색, 검정색을 피하고 녹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초대 받았을 경우 초콜릿, 꽃 등의 작은 선물을 준비하되 경조사 발생시현금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홀수로 끝나야 함

□ 복장

- 더운 날씨로 인해 양복 상의와 넥타이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며 IT 분야의 경우 구두 대신 스니커즈를 신는 등 캐주얼한 의상이 보편적
- 여성의 경우 전통의상이나 바지정장을 주로 입고, 지역별로 상이한 무늬 및 문양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



V. 남인도 체류 활동 정보

1. 비즈니스 안내

□ 남인도 지역특성

○ 남인도 개황

- 남인도는 인구 2억 5천만 명 이상, 풍부한 문화적 유산, 천연적 항구, 오랜 교역 역사로 인도 시장진출 전초기지로 활용가능. 남인도의 Calicut와 Cochin은 고대로마시대 금, 은, 실크 및 향신료 의 교역 항으로 유명함. 남인도는 문맹률, 교육, 지역개발, 보건 등 사회적 인프라는 여타 지역에 비해 발달하여 비즈니스 추진이 용이. 문자해독률은 인도 평균 50%보다 높은 60% 수준이며, 중산층의 증가로 구매력도 급신장하는 추세. 또한 남인도는 매년 25,000명의 엔지니어가 배출되고 인도 전체 엔지니어 수요의 40%를 남인도에서 충당

○ 남인도 투자 동향

- 남인도 5개주(Andhra Pradesh, Karnataka, Kerala, Pondicherry, Tamil Nadu)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여타 지역보다 자유화 및 개방화 속도가 빨라 인도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총액의 25~35% 이상을 점유
- 현대 자동차를 포함하여, 삼성전자, 노키아, IBM, 모토롤라, HP, Ford, Dupont, 닛산 등 주요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하여 활발한 생산 활동 수행

○ 남인도 시장 특성

- 91년 개방화 정책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인도시장 특성은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5% 내외로 추정되는 중상층 이상의 경우 우리나라 및 서구 일반계층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그에 따른 시장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 따라서 대중용 제품의 경우 1차적으로 가격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인도 수출에 있어 1차적 관건이 가격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반면, 일부 상류층용 제품의 경우 가격보다 브랜드 이미지 등이 중요한 제품 선택의 요소로 작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은행, 보험 등 주요 금융업과 전력, 가스, 통신, 정유, 운수, 도로 등은 물론, 호텔 등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및 주정부 위주의 공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부문이 많음. 이에 따라 주요 원자재, 시설재 구매 시 이들 정부기관 및 공공기업들을 이행하고 있는 대규모 입찰이 주요 수입경로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수입시장과 관련해서는 2001년부터 기존 수입제한 품목으로 묶여 있던 715개 품목이 수입 자유화되어 무기, 마약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이외에 별도 수입규제는 완전 철폐됨. 그러나 부가관세 등을 합해 통상 28%를 전후한 높은 관세가 진출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동 관세율도 향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넓은 국토로 주요 상권이 경제 권역별로 분리, 북부의 뉴델리, 서부의 뭄바이 (구 봄베이), 서부의 콜카타, 남부의 첸나이 (마드라스)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실수요자를 대리한 수입대행업체(Importing Agent)의 수입 비중이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임

□ 상관행, 비즈니스 유의사항

○ 가격협정

- 인도는 가격시장으로 인도 기업인들은 상담 시 가격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특히 가격 네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가격협상을 지루할 정도로 지속
- 또한 인도 기업인들은 처음 가격에서 최소10% 정도의 D/C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상담에 임하기 때문에 상담 시 판매 가격에서 10% 정도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1차 7% 최종 3%를 추가 인하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가격 협상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상담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
- 인도 기업인들에게 추가 가격인하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줄 경우 여타 다른 기업의 유사한 모델의 가격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가격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성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
- 인도 기업인들은 가격 협상 시 언더밸류를 종종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사전 인수 후 선적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할 필요



2. 현지체류 참고사항

○ 한국과의 시차

- 한국보다 3시간30분 늦음 (인도 오전 8시30분이 한국 낮 12시가 됨)

○ 기온 및 복장

- 첸나이 평균기온은 약 35°C로 사계절 내내 습하고 더운 날씨임
- 더운 날씨임에 따라 현지에서는 대부분 양복 및 넥타이를 착용치 않음. 공식석 상에도 넥타이를 하지 않고 긴팔 와이셔츠만 입는 경우가 많음

○ 환전 및 환율

- 은행, 공항, 호텔에서 환전이 가능
 - * 일반적으로 은행에서의 환전이 호텔보다 환율이 유리
 - * 미화 5천불 이상의 환전 시 입국 시 외화반입 신고 서류를 요청
- 환율 (2017년 4월 25일 기준) : Rs 1 = KRW 17.55 (*매매기준율)

USD 1 = Rs 64.28

○ 전 화

- 국제전화 : 00
 - * 서울 전화시 : 00-82-2-전화번호
 - * 호텔 통화시 : 외부통화 번호 0번 또는 9번을 누른 후 이용
- 공중전화 : PCO/STD/ISD의 노란 간판이 있는 곳에서 이용
- 휴대폰 : 한국 휴대폰 중 통신사(KT, SK)에 따라 자동 로밍 서비스가 됨(단, 자동 로밍서비스의 경우 착발신시 요금이 매우 비싸므로 주의를 요함). 인도에서 휴대폰 사용시, SIM 카드를 구입한 주나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음. 그러므로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통신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음. 이 서비스는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도 발신은 안 되더라도 착신은 가능

○ 시내교통

- 렌 트 카 : 소형차종인 경우 1일 8시간기준 대략 2,500루피 내외 소요
- 콜 택 시 : 기본요금은 100~150루피이며, 시간거리 병산제
- 오토릭샤 : 삼륜차로 기본요금이 25루피이며, 시간거리 병산제이나 사전 요금협

의를 요구할 때도 많음(*현지에서 일반적인 교통수단이나, 야간은 이용치 않는 것이 바람직).

- 택시 및 렌트카 이용방법 (공항- 시내)
 - 공항에서 시내중심까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가 곤란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운전사에게 가야할 곳의 주소를 보여 주면 쉽게 찾을 수 있음.
 - 공항에서 시내간 평균주행속도가 40km/h로 택시기준 30분 소요.
 - 공항내 Travel Desk(선불제) 또는 공항청사 밖에 대기 중인 택시 이용.
 -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거리시간 병산제이나 바가지요금 성행으로 승차전 반드시 운전자와 협상을 하여 요금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항-시내 간 택시요금은 Rs.500(미화\$8, 야간의 경우 20%내외 할증) 정도면 바가지요금은 아님.

- 기타 교통 이용 시 참고사항
 - 인도는 영어 사용 국가이나 택시운전자중 영어구사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는 곳의 주소를 보여주거나 호텔 협조를 받을 것을 권고
 - 신변 안전을 위해 콜택시나 호텔 택시를 권장하며, 오토릭샤는 운전기사들과 영어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이용 시 요금 사전협상 필요: 시내 Rs.30~150)
 - 첸나이 현지에서도 UBER, OLLA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제공 서비스가 널리 보급되어 있음. 목적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지어 드라이버를 만나는 경우에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동과 결제(카드선택시)가 가능함. 다만, 교통체증 및 탑승위치와 먼거리의 운전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간 대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첸나이 소재 호텔**

| 호텔명 | 등급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시설 |
|--------------------|--------|------------------------|----------------------------|
| ITC Grand Chola | 5 Star | 2220-0000 2220-0200 | - 뷔페식당, 인도/양식 - 이태리식당 등 |
| Hyatt Regency | 5 Star | 6100-1234 6100-1235 | - 뷔페식당, 중식당 - 이태리식당 |
| Courtyard Marriott | 5 Star | 6676-4000 6676-4001 | - 이태리식(Rhapsody) |
| The Park | 5 Star | 4267-6000 4214-4100 | - 양식/뷔페식당 |
| Residency Towers | 4 Star | 2815-6363 2815-6969 | - 인도식, 양식 식당(Sky Lounge) |

○ **한국인 운영 게스트 하우스**

| 게스트하우스명 | 운영자 | 휴대폰(+91-) | 비고 |
|-----------|-----|-------------|--------|
| 청기와게스트하우스 | 최중애 | 97890-38354 | 시내 |
| 한강게스트하우스 | 김재현 | 97890-23478 | 시내 |
| 달선호텔 | 오달선 | 98410-12002 | 현대공장인근 |

○ **한국인 운영식당**

| 식당명 | 전화번호 | 휴대폰 | 비고 |
|-----|-----------|-------------|--------|
| 영두 | 4213-8884 | - | 시내 한식당 |
| 에서 | - | 98400-20004 | 시내 한식당 |
| 청기와 | - | 97890-38354 | 시내 한식당 |



VI. 주요 연락처

○ 첸나이무역관

- 주 소 : No. 12/1, old no. 11, Bashyam Basheer Ahmed Street (also known as Bashyam Basheer Ahmed Road), Alwarpet, Chennai 600 018
- 전 화 : (91-44) 2433-7280, 7282~5
- 핸드폰 : 김선기 관장 (91) 98400-25933
김태룡 과장 (91) 73388-76511
- 팩 스 : (91-44) 2499-4728
- 홈페이지 : www.kotra.or.kr/KBC/chennai
- E-mail : kotra@chennaiktc.com

* 한국에서 전화할 경우에는 (국제전화번호)-91-(44)-(전화번호)로 걸면 됨

○ 기타 주요기관

| 기 관 명 | 전화번호 |
|---------------|--|
| 한국대사관 (뉴델리소재) | (91-11) 4200-7083/ 야간: 098115-01848 |
| 첸나이 총영사관 | (91-44) 4061-5500 (김형태 총영사) |
| 첸나이 한인회 | (91) 98402-09562 (회장 조상현 퍼플인 호텔 대표) |
| 첸나이 한국 명예영사관 | (91-44) 2823-7307 (명예영사 Dr. Venu Srinivasan) |
| 구급차 요청 | 1066 |
| 경찰신고 | 100 |
| 화재신고 | 103 |
| 전화번호 안내 | 197 |



Ⅶ. 기타정보

1. 주요 관광지



- 도마성당(San Thome Basilica)
 - 예수의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St. Thomas)의 무덤위에 세워진 성당
 - 16세기경 포르투갈 선교사에 의해 세워졌으며, 전세계적으로 예수님 제자의 무덤위에 세워진 성당은 세 개에 불과 (로마 베드로성당, 스페인 야고보성당)
 - 도마성인은 서기 52년에 인도 케랄라에 도착, 서기 72년에 첸나이에서 순교함



- 마리나비치(Marina Beach)
 - 북쪽부터 남쪽까지의 길이가 13 km에 달하는 세계 2번째의 해변이며 평균 해변 폭은 300m임(거센 파도로 해수욕은 법으로 금지)
 - 서민들의 휴식처로 주말 평균 30,000명이 운집
 - 타밀 민족주의의 대표적 인물인 Annadurai와 MGR의 Memorial이 위치



- 스펜서 플라자(Spencer Plaza)
 - 도심에 위치한 쇼핑몰이자 재래시장이며 첸나이의 주요 랜드마크
 - 식민지시기인 1863년 건축되었으며, 1895년 인도 최초의 백화점으로 오픈함
 - 원래 건물은 화재로 소실되고, 1985년 지금 형태로 재건축됨
 - 첸나이를 대표하는 쇼핑몰이었으나, 지금은 기념품 등을 파는 재래시장으로 기능



- 익스프레스 에비뉴 몰(Express Avenue Mall 혹은 E.A. Mall)
 - 도심에 위치한 대표적 쇼핑몰
 - 의류, 잡화, 식료품, 영화관, 음식점 등 210개 매점 입주
 - 총면적 : 84,000m²



- 도마 마운트 성당(St. Thomas Mount)
 - 1523년 포르투갈 선교사에 의해, 도마성인의 순교지 위에 건축됨
 - 공항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1986년 요한바요로2세가 방문함
 - 해발 90m정도지만, 첸나이지역 유일한 언덕으로 시내 전체 조망가능



- 마하발리뿌람 (Mahabalipuram)
 - 첸나이 시내에서 58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변에 위치한 고대(7세기 건축) 사원, 화강암 절벽에 조각된 동물형상, 궁전터 등이 유명함.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며 입장료는 Rs.250



- 박물관 (Government Museum)
 - 1857년에 설립된 박물관으로 지질학, 고고학, 인류학, 동물학, 식물학 등 다양한 전시 물품 보유
 - 관람시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요일 및 국경일은 휴관)



- 피닉스 마켓시티(Phoenix Market City)
 - 총면적 1,000,000m²의 첸나이 최대쇼핑몰
 - 의류, 잡화, 식료품 뿐 아니라 영화, 놀이시설 및 공연 등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 약 250개의 매점 입주

2. 유용한 타밀어 표현

- 안녕하세요? : 와나감
- 저는 ○○라고 합니다. : 와나감 엔노리에 빼야르 ○○
- 감사합니다 : 난드리 와나감
- 예(Yes) : 아마 (*고개를 좌우로 흔들) ○ 아니요(No) : 일레
- 어서오세요: 방-가방-가 ○ 다녀오세요: 뽀이뜨 방가

3. 기타 유의 및 참고사항

- 전기규격은 220V, 50Hz를 사용하나 전압이 일정치 않아 전자제품 사용 시 안정기(UPS)를 함께 사용함. 플러그 타입은 한국과 동일한 Round Type이나 크기가 2종류가 있음
- 은행, 공항, 호텔에서 환전이 가능함. 환전소 및 호텔에서 환율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음. 미화 5천불 이상의 외화반입 시 신고 서류를 요청
- 야간에 홀로 외출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바람직 (*어두운 지역에 외국인이 혼자 있으면 범행 대상이 됨)



해외에서의 「청탁금지법」 준수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KOTRA입니다.

지난 9.28일부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도 적용되므로, 해외에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KOTRA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님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KOTRA 청탁방지담당관 올림